

‘쌀·꽃게·곱창김...’ 진도 농수산물 호주 수출길

지역 농수산업 활성화·농어가 소득↑
군, 해외시장 발굴·개척 등 지원

진도 농수산물이 호주 수출길에 오르면서 지역 농수산업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이끌고 있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달 초 진도 꽃게, 곱창김, 젓갈류, 건해산물과 진도쌀 등 5톤(5만 달러) 가량의 농수산물이 호주 시드니와 혼스비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수출된 진도 농수산물은 호주 한인마트 등에 납품돼 교민들과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번 수출을 통해 진도군의 농수

특산물 품목과 물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김희수 진도군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우수 농수산물 통합 관리와 마케팅을 통한 유통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인 농수산유통사업단을 지난 1월 신설, 첫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진도군청 청사 앞에서 열린 선적식은 김희수 진도군수, 장영우 진도군의회 의장, 리차드 김 ㈜마이홈푸드 대표, 김기영 진도군수협장, 강성민 서진도농협장 등이 참석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최근 K-푸드 전 세계 확산과 맞물려 진도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과 농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이 꽃게, 곱창김, 젓갈류, 건해산물과 진도쌀 등 5톤의 농수산물을 호주 시드니와 혼스비 등으로 첫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며 “해외시장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영화 ‘웅남이’ 무료 상영
강진군, 9일 강진아트홀

강진군은 영화 ‘웅남이’를 9일 오후 3시, 7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무료 상영한다고 6일 밝혔다.

‘웅남이’는 단군 신화를 모티브로 100일 동안 썩고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쌍둥이 곰들이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국제 범죄 조직에 맞서는 좌충우돌 코미디 영화다. 개그맨 박성광의 영화 데뷔작으로 탄탄한 연기력의 소유자로 한국 영화계를 이끌고 있는 박성우, 카리스마 넘치는 최민수, 보기만 해도 웃기는 오달수의 연기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관람료는 무료며 상영 30분 전부터 15세 이상 선착순 입장하면 된다.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면 되며 발열 체크 시 37.5도 이상이면 입장 불가다.

강진=김윤복 기자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신안군, 예산편성 참여의식 함양

신안군은 청소년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15명을 대상으로 △신안군 예산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과 역할 등을 설명했다.

군은 올해부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받아 청소년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해 청소년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신안군을 생각하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모범도시숲 인증 현판식
신안군 도초 환상의정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환상의 정원(팽나무 10리길)’이 지난해 산림청에서 처음 시행한 모범도시숲 가로수 부문 인증을 받아 최근 산림청장 인증 현판을 도시숲내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모범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모범도시숲 가로수 부분의 ‘환상의 정원’은 수종 선정부터 식재, 사후 관리, 연계 행사 등 인증 심사기준을 통과해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됐다.

도초에서 매년 개최되는 수국축제와 환상의 정원을 가꾸는 자원봉사단체 및 주민 참여 활동 등이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범도시숲 인증을 받은 정원(팽나무 10리길)에서 오는 16~25일 ‘베로 가는 섬 수국축제’를 개최하며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은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단위 면적(ha) 당 전국 최다 수국 식재 인증을 받은 바 있어 풍성하고 다양한 수국을 만날 수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 유기농 오디 수확 한창

해남군 문내면 명랑농원에서 유기농 오디수확이 한창이다. 전남도 유기농 명인 박성관 대표가 민달팽이 유인트랩과 해충트랩 등을 이용해 벌레를 퇴치하고 자연생태 순환농업, 토착미생물을 활용해 유기농 퇴비 제조 등을 통해 유기농 재배를 성공시켰다.

해남군 제공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17개 품목 추가

강진군은 강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에게 정성이 담긴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17개 답례 품목을 추가로 선정하고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추가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임·수산물 3개(버섯, 장어, 새우) △가공식품 10개(장류, 조청, 전통주, 차류, 떡류, 제빵류, 간편 매생이, 귀리 웨이크, 여주 가공식품, 버섯 가공식품) △공예·

산품 2개(정자소품, 방향제) △관광 서비스 2개(정자촌 오토캠핑장 이용권, 가우도 즐기기 이용권)이다.

모집 대상은 접수일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강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 선정 품목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임·수산물, 가공식품, 공예(산)품의 경우, 강진산원 재료를 포함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로,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을 방문

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홈페이지(g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430-3464·5)으로 하면 된다.

강진군은 6월 중 강진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장보고한상 세계대회 “모국 기업과 동반성장 협력”

장보고글로벌재단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회 장보고한상 어워드(장한상) 수상자 세계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계대회에는 박종범·고상구 장한상 수상자협의회 명예회장과 김점배 회장을 비롯한 수상자,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참석했다.

21세기 장보고로 인증을 받은 장한상 수상자들은 모국 기업인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정정바다 완도와 K-씨푸드’, 이승훈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자카르타 지사장이 ‘인도네시아 식품시장 수출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세계대회 기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이 주최한 환영 만찬과 코린도그룹 KHI공장 견학 프

로그램도 진행됐다.

김점배 장한상수상자협의회 회장은 “장한상수상자협의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모국 기업인들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개별공시지가 365소통 서비스
영암군, 주민 불편 해소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를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7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다음, 법정기한이 지나면 주민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이 제한됐다.

하지만 소통창구를 통해 영암군민은 영암군 온라인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영암군홈페이지→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 시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신청인에 통지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365 소통창구로 영암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초등생 입학축하금 30만원 지원
해남군, 20일부터 신청

해남군은 올 초등학교 입학생에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이후 첫 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해남군내 초등학교 입학생은 총 314명이며 입학축하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3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30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해남군 교육재단(061-530-5931)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입학생의 친권자 또는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다.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타지역(관외)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와 타지역에서 입학한 후 관내 학교로 전학 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 교육재단은 ‘지역민과 함께 키우는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이라는 비전으로 2월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해남=전연수 기자